



이광문

사단법인 한국환경지류포장협회 회장

## 친환경 상품을 적용하는 것이 GR을 이길 수 있다

**포장**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의 약 20.7%를 차지하고 있고, 필요이상의 과대 포장으로 포장재 사용량이 연평균 13.8%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스티로폴 등 합성수지류 포장재는 대부분 한번 쓰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난분해성으로 인해 쓰레기의 적정 처리가 곤란하며 쓰레기 매립장의 반입거부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에 위해되지 않는 친환경 상품을 만들어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부시책과 21세기를 맞이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친환경 포장재 생산업체들의 모임단체인 한국환경지류포장협회를 설립하여 1995년 7월 13일 창립총회를 갖고 1995년 9월 28일자 통상산업부에 정식으로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득한 최초의 생산자들의 환경단체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협회는 국민생활에서 선량한 시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계란은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될 영양식으로 완전식품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유통 과정의 현 플라스틱포장은 플라스틱 특유의 내음이 계란에 스며들고 또한 캡슐의 경우 밀폐된 포장용기 등으로 계란이 빨리 상하는 문제점, 난좌의 경우 재사용으로 인해 비위생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사용후에도 버리면 폐기물로 처리되어 하루에도 8톤트럭 기준 200대 물량의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 방황되고 있는 현실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플라스틱 산업보호 차원의 구실아래 정부의 세계화 추진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보사부의 위생면, 농수산부의 생산자 보호면, 환경부 환경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여 선량한 소비자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수지 재질과 스티로폴의 감량화를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포장재에는 소각을 시켜도 환경을 위해서기는 물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열량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며 몇번에 걸쳐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섬유질의 생명이 다해 매립되는 흙으로 환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 제품의 포장재보다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몇번이고 재생하여 사용하는 종이 포장재는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폐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종이 포장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이 적고 점점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으며 폐수는 계속적으로 순환하여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폴 포장재는 산과 들, 강이나 호수 어느 곳을 가든지 널려 있으며 여름에 홍수가 지면 물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은 모두 합성수지 재질이나 스티로폴 뿐이다.

앞으로 정부는 환경 보전적인 차원에서 환경상품의 개발을 적극지원 해줘야 하며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넓혀주고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최근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의 부족으로 기존의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폐기물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에 의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원천재 감량화'와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감량화'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연차적 감량화 계획만 있을뿐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폐기물 감량화 조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강한 어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나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역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반대하는 단체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환경지류포장협회는 위와 같은 정부시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롭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는 일념으로 폐자원을 이용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모여 '쓰레기 종량제'와 폐기물 재활용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SO 14000과 GREEN ROUND에 대비하고자 불철주야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폐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재생 제품들의 기계설비가 장치산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시설투자 금액을 투자하고도 아직까지도 제품이 잘 공급되지 않고 있어 회원사 전체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과감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측의 보다 더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해야만이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쓰레기종량제'와 '폐기물감량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우선적으로 폐자원을 이용하여 재생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과 생산제품의 우선구매를 해주어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살려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위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업체들의 뜻을 헤아려 주길 기대한다.

우리가 이처럼 환경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생태계가 합성수지 재질에 의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종이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영원히 물려 줄 수 있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